



이것은 교회가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직자들의 직장에 평신도가 그저 손님으로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느님 백성 전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곧 하느님 백성이고, 종말의 하느님 나라를 향해 전체 신자들이 함께 걸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시노드에서 전체 신자들이 의견을 내고 서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이 ‘동반하며 걸어나는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노드(*συνόδος*)라는 말 자체가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노드 개막 미사에서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각계각층의 교우들과 함께, 특히 다리가 불편하신 교우의 휠체어를 밀어 드리면서 입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습이 시노드 정신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 시노드 정신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노드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가 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자도 주변 사

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교회의 현재 상태가 오히려 위기라고 이해하시며, 교회가 중산층화되어 가난한 이들이 떠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범죄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직주의를 멀리하며, 전 지구적 감염병으로 더 심해진 인격적 관계 단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죠. 이번 시노드가 이러한 경청과 식별을 통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에 ‘참여’하며, 친교를 나누고, ‘선교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한편, 신임 교구장님께서도 시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교우들의 관심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교황님께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함께 걸어나는 여정으로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 ‘시노드의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찾아(성찰해) 보고 함께 걸어갈(제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교구민 여러분도 함께 기도, 참여해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서울주보는 앞으로 매달 시노드 진행 현황을 비롯하여 시노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는 코너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노드와 더불어, 서울주보의 시노드 관련 기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리문고답하기 원고는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www.synod.or.kr) 자료를 참고하여 집필되었으며, 시노드 교구 실무자이신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양주열 베드로 신부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